

“소통 · 경청 · 배려에 최선의 노력 기울일 것”



강현신 부안경찰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제60대 부안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강현신 서장은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변화하는 부안경찰! 부안군민이 믿고 의지하는 부안경찰!을 강조하며 “군민을 섬기며 군민이 필요 할 때 필요한 곳에 있는 세심하고 따뜻한 경찰, 부패와 부조리 등 의무위반 없는 경찰, 소통과 경청 그리고 배려하는 경찰”이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 하반기 전북경찰청 자체 체감안전도 조사 결과 부안경찰서가 도내 15개 경찰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체감안전도 조사는 전화 설문 등을 통해 부안지역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의 범죄·교통사고 안전도 및 범죄예방준수도, 경찰 노력도 수준을 측정하는 조사로 전반적 안전도, 범죄 안전도, 교통사고 안전도, 범죄예방준수도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강 서장은 검거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치안활동 전개로 4대 사회와 근절과 여성안전 특별치안활동, 특히 교통사고 예방활동 주력 등 민생치안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지난해 부안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원년의 해”로 정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다짐 결의 회의를 통해, 교통법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고, 교통사

주지역의 범죄 · 교통사고 안전도 · 법질서 준수도 등 우수 평가 1위 차지 교통사고예방 안전교육 · 홍보활동 강화 결과 교통사망사고 22% 감소

고예방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2015년) 교통사망사고 22%가 감소하였다.

특히 부안서는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대한 시설개선과 교통법규 준수계도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간이 중앙분리대·차선도색·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모범운전자 회·노숙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왔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강령여성범과 발생관련, 여성안전 및 안심치안을 위한 치안대책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하려고 부안군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부안군의 경우 마실 축제와 연계하여 걷기 좋고, 아름다운 마실길을 운영·홍보하고 있으나, 범죄 취약장소 및 안전시설(CCTV, 울라표지 등)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여성 안심 귀갓길 및 안전한 부안군을 조성하기 위해 부안군과 협업 강화하였고, 부안군 치안안정 및 범죄예방 활동 예산을 협조하였다.

특히 강 서장은 “안전한 부안군 만들기”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를 갖고 찾아가는 치안설명회는 경찰이 군민에게 직접 방문해 각종 치안정보를 제공하는 치안서비스를 펼치려고 부안군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마을 이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경찰의 주요치안활동에 대한 군민과 대화 시간을 통해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취임사를 통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강서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내키지 않는 걸음을 하기 보다는 상쾌한 기분과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한 강서장은 상·하 관계를 떠나서 서로 동료라는 생각으로 매주 수요일 각 부서 실무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부서별 워크숍 및 족구대회 등 직장 내 소통문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6년 하반기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였다. 직무만족도 조사는 쉰경찰관을 대상으로 인사·성과관리, 근무환경, 복지, 의사소통, 조직분위기, 직

무, 교육 등 7개 분야에 대해 실시하여 부안서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강 서장은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이영식)와 함께 부안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 연탄(4,000장)을 직접 전달하였다. 추운 날씨에 차량 차량진입하기가 어려운 재가 11가구에 연탄을 직접 전달하며 연탄 배달에 갈바람의 한파에도 굶은 땀방울을 흘렸다.

강 서장은 사랑나눔 연탄 배달을 계기로 부안경찰서와 경찰발전위원회는 일회성 봉사 아니라 정례화하여 매년 관내 저소득 가구에 연탄을 전달해 이웃 사랑 나눔 운동을 실천하기로 했다.

강 서장은 부안 상설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상인 등 부안군민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지역 농산품을 구매하는 등 장보기 행사를 펼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농산품을 구매하며 불경기와 추위에 지친 상인들을 격려했고,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치안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부안군의 치안책임자로서 ‘주민중심’, ‘주민편중’을 바탕으로 주민을 섬기는 치안행정을 펼치고 있는 강현신 서장은 “공정의 마인드와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하는 부안경찰, 부안군민이 믿고 의지하는 부안경찰이 될 수 있도록 부안군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부안=이육수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마,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집중모금기간 2016.12.1~2017.1.31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